

《뱀 선생 蛇先生》, 라이허 賴和 지음, 김혜준/이고은 옮김, (서울: 지식은만드는지식, 2012.9)

옮긴이에 대해

김혜준/이고은



김혜준은 고려대학교 중문과에서 중국 현대문학을 전공하고 《중국 현대문학의 '민족 형식 논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부산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동안 홍콩 중문대학, 중국 사회과학원,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등에서 연구생 또는 방문 학자 신분으로 연구를 했다.

구체적 학문 분야로는 중국 현대문학사, 중국 신시기 산문, 중국 현대 페미니즘 문학, 홍콩 문학, 화인 화문 문학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중국 현대문학 발전사》(1991), 《중국 당대 문학사》(1994), 《중국 현대 산문사》(1993), 《중국 현대 산문론 1949~1996》(2000), 《중국의 여성주의 문학비평》(2005) 등 관련 이론서를 번역하기도 하고, 《하늘가 바다 끝》(2002), 《쿤룬산에 달이 높거든》(2002), 《사람을 찾습니다》(2006), 《나의 도시》(2011) 등 수필 작품과 소설 작품을 번역하기도 했다. 저서로 《중국 현대문학의 '민족 형식 논쟁'》(2000)이 있고, 논문으로 <화인 화문 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2011) 외 수십 편이 있다.

개인 홈페이지 '김혜준의 중국 현대문학(<http://home.pusan.ac.kr/~dodami/>)'을 운영하면서, <한글판 중국 현대문학 작품 목록>(2010), <한국의 중국 현대문학 학위 논문 및 이론서 목록>(2010) 등 중국 현대문학 관련 자료 발굴 및 소개에도 힘을 쏟아 왔다. 근래에는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실(<http://cccs.pusan.ac.kr/>)을 중심으로 청년 연구자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번역 역시 그 결과물 중의 하나다.

이고은은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일본 화인 화문 문학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부산대학교 현대중국문화연구실에서 이번 번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1980년대 이후 일본의 중국인 문학 연구>(석사학위 논문, 2008. 2), <일본 화문 문학의 여성적 글쓰기 연구(論日本華文文學的女性寫作)>(2008. 10), <경계에서 말하다: 양이(楊逸)의 <시간이 스며드는 아침>을 중심으로>(2010. 4) 등이 있고, 그 외 중국 영화 관련 리뷰인 <사랑... 저 기억 너머>(2008. 8)가 있다.